

천주교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종태 (한국교회사연구소 연구실장)

1. 천주교 유물의 관리 실태

천주교가 전래된 지 220년이 지난 현재 천주교는 우리 국민의 중요한 종교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천주교 수용은 선교사의 전교도 없이 한역서학을 통해 자발적으로 수용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한 것으로서 옛날부터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리고 박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증거하다. 순교한 103명의 순교자들이 지난 1984년에 성인으로 시성되었고, 또 124위 순교자들이 시복·시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들 순교 성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에게 추앙을 받고 있다. 게다가 천주교의 한글 교리서·신심서·기도서 등은 한글의 보급과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천주교와 함께 우리나라에 전래된 서양 문물은 우리나라의 근현대 문화를 발전시키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유물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나 미래의 우리 삶과 관련해서 절대로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매우 소중한 유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천주교 유물에 대해 교회는 물론이고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도 그 동안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신앙의 자유와 함께 전국 각지에 세워진 오래된 성당들이 많았으나 그 소중한 가치를 모르고 헐고 새로 짓는 바람에 훌륭한 문화 유산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다. 최근에 교회나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 그 가치를 인식하여 보존에 나서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건축물 이외의 유물에 대해서는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알아본 결과 천주교 유물의 구입이나 전시에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내년에 용산에 새로이 문을 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종교와 사상실'이 새로이 마련되지만 평수가 적고 소장하고 있는 천주교 관계 유물도 별로 없기 때문에 천주교 관계 유물은 전시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정이 이러하니 지방의 국립박물관의 사정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천주교 관계 유물의 구입과 전시에 거의 배려를 하고 있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박물관의 경우도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나 가톨릭대학교의 전례박물관, 대구가톨릭대학 박물관을 제외하고는 천주교 관계 유물의 수집과 전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다만 국립중앙도서관, 규장각, 장서각, 일부 대학 도서관 등에 천주교 관계 고서들이 약간 소장되어 있을 뿐이다.

천주교 유물은 주로 천주교 기관에서 수집·전시·보관해 오고 있다. 우선 성지에서 관련 순교자들을 현양하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세워 운영하고 있고, 또한 성당이나 수도원에서도 관련 성직자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박물관이나 기념관을 설립하여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교나 연구소에서도 연구에 활용할 목적으로 박물관이나 도서실을 만들어 유물을 수집·전시·보관하고 있다. 이러한 천주교 박물관의 현황에 대해서는 절을 바꾸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2. 천주교 박물관의 현황

(1) 성지에 설립된 박물관

1)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

서울 마포구 합정동 91-6번지 절두산 순교 성지에 있다. 가장 오래되고 가장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천주교의 대표적인 박물관으로 1967년에 설립되었다. 1956년 천주교계 일각에서 병인박해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당한 절두산 지역을 성지로 조성하자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이때 한국 천주교 순교자 현양회는 '절두산 치명터를 확보하자'라는 호소문을 발표하여 각계각층의 협조를 이끌어내 1956년 12월 7일 잠두봉 일대의 치명 터를 매입하였으며, 1962년에는 '가톨릭 순교 성지'라고 새긴 12m의 순교 기념비를 세웠다. 1966년에는 병인박해 100주년을 맞이하여 순교자들의 신앙을 현양하고 병인박해를 되새기기 위해 절두산 일원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결정하고, 3월에 건립 공사를 시작하여 1967년 10월 병인순교 100주년 기념 성당과 기념관을 완공하여 개관하였다. 그 명칭을 2000년 11월에 '절두산 순교박물관'으로 바꾸었다가 2002년 2월 20일 다시 '절두산 순교 성지'로 바꾸었다.

절두산 순교 성지 건물은 총 459평으로 본 건물 3층, 종탑과 기념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건물 3층은 박물관으로 1층에 향온·향습 시설을 갖춘 수장고를 최근에 설치하였고, 2층과 3층은 전시실로 사용하고 있다. 기념 성당 지하실에는 서양식 유해 안치소인 성해실이 있는데, 현재 27위 순교 성인들의 유해와 무명 순교자 1명의 유해가 모셔져 있다.

개관 당시 수집 보관되어 있던 유물은 약 500점에 불과하였으나 그 뒤 꾸준히

유물 수집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현재는 한글 번역본 『천주실의』, 『성찰기략』 등 천주교 관계 고서류 1,258책, 이벽·이승훈 편지 등 지본류 193점, 내포 지방에서 발굴된 목주·고상 등 성물과 베르뇌·블랑 주교 등 역대 주교들의 제구 750점, 정약전·정약용 등의 회화 155점, 민속도자기 186점, 민속품 151점, 사진류 295점 등 총 3,000여 점을 소장하고 있다. 이러한 소장 유물들 가운데는 『주교요지』, 『사학징의』, 『놀암기략』, 『기해병오순교자증언록』, 『김대건신부서한』, 『최양업신부서한』, 『병인치명사적』, 『사학한가사변물방매성책(邪學漢家舍汙物放賣成冊)』, 『박순집증언록』, 『병인순교자시복재판기록』 등과 같이 한국 천주교회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유물들은 최근에 새로 꾸민 2층과 3층의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에 나뉘어 전시되어 있다. 3층의 제1전시실에는 한국천주교회의 역사를 더듬어볼 수 있는 유물들이 시대순으로 전시되어 있고, 2층의 제2전시실에는 한국천주교회의 근현대사 관련 유물, 역대 서울대교구장 유품, 초기 교회의 역사를 재현한 전통 인형 작품, 교회 창설 200주년 기념 대회 및 103위 성인 시성식 관련 유물, 박해시대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제대 등이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야외 전시장에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 절두산에서 순교한 신자들의 모습을 새긴 석조 조형물, 신자들을 고문할 때 사용한 각종 형구의 모조품이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절두산은 사적 399호로 지정되어 있다.

2) 오륜대 한국 순교자 기념관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 3동 1-4번지에 있다. 한국 복자 수녀회에서 신자들의 신심을 북돋우고 순교자를 현양하기 위해 1982년 9월 25일 개관했으며, 김옥희 수녀가 개관 당시부터 현재까지 관장을 맡고 있다. 한국 순교 복자 수녀회는 1946년 창설된 이래 순교자들의 유물과 교회사 자료 수집에 진력하여 전국에서 박해시대의 순교자 유물, 초기 교회 신자들의 유필 등 귀중한 자료와 형구, 교우촌에서 발굴된 유물 등을 수집하였다. 수녀회에서는 수집한 교회사 자료들을 연구·정리하여 전시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서울 절두산 성지에 순교자 기념관이 건립됨에 따라 지방 교우들을 위해 부산 오륜대에 순교자 기념관을 세우기로 하였다. 1976년 9월 30일 기공식을 가졌고, 이듬해인 1977년 7월 20일 순교자 성당의 준공식을 거행하였다. 성당의 제단 뒤 벽에 한국 순교 복자 20위의 유해를 안치하고, 그 해 9월에는 이정식을 비롯한 부산의 순교자 8명의 묘소를 오륜대 뒷동산으로 이장하였다. 1978년 2월 서울 청파동 본원에서 순교자 자료 및 교회사 자료를 옮겨왔고, 8월에 한국 가톨릭 문화 연구소를 건립하였으며, 1981년 10월 5일 기념관 축복식을 가졌다. 그

리고 마침내 1982년 9월 25일 정식으로 기념관을 개관하였다.

기념관의 전시실은 모두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층 전시실에는 박해 시대 교우촌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의 유물·문적을 비롯하여 각종 형구가 진열되어 있다. 특히 대들보 사형틀, 행형도자(行刑刀子), 태형대(笞刑臺), 수십 종의 곤장, 목에 쓰는 칼 등이 철저한 고증에 의해 그 형태가 복원되어 있다. 2층 전시실에는 이벽·권철·신·권일신 등 초기 순교자들의 유품과 천주교 서적 등이 전시되어 있다. 김대건 신부의 횡대(橫帶)와 친필 서간, 정약용·권일신의 십자가, 윤봉문의 위장 교리서 등과 『천주교성교예규』·『성교감략』·『신명초행』·『성경직해』·『사사성경』·『천주성교공과』·『성모성월』 등의 천주교 고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2층 성모 성년 특별 전시실에는 성녀 발바라상(목제, 1700년경), 강화도 무명 순교자 무덤에서 발굴된 성모상, 일본의 마리아 관음상 등 전 세계에서 모은 성모상들이 전시되어 있다. 3층에는 김인순(누갈다)씨가 기증한 민속품과 의왕(義王) 이강(李綱) 부인이 기증한 조선 후기 궁중 의상과 장신구와 민속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 성당 내부에 시성 이후 6위의 성인 유해가 추가로 안치되었고, 야외 전시장에는 김대건 신부가 귀국할 때 타고 왔던 라파엘호 모형이 전시되어 있다. 서울 청과동 본원에는 아직도 많은 유물이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3) 관덕정 순교 기념관

대구 광역시 중구 남산 2동 938-19번지에 있다. 관덕정은 조선 후기에 대구 읍성 남문 밖에 있던 연병장으로 을해박해(1815), 정해박해(1827), 기해박해(1839), 병인박해(1866-1872) 때 이윤일 성인을 비롯하여 총 55명의 신자들이 사형을 당한 순교 성지이다. 대구대교구에서는 한국 천주교 창설 200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이곳에 ‘관덕정 순교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하고, 1983년부터 2년에 걸쳐 부지를 매입한 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기념관을 완공, 1991년 5월 31일 개관하였다.

기념관 지하층에 경당이 있는데, 경당 안에는 이윤일(요한) 성인의 유해를 모신 돌제대와 영정이 있다. 또 경당을 향하여 오른쪽에는 성인 유해실이 있다. 이 곳에는 30여분에 이르는 성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제대가 보관되어 있다. 경당 맞은편에 있는 제1전시장에는 대구대교구의 발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

지상 1층 로비에는 순교자를 상징하는 스테인드글라스의 그림이 있으며, 바닥에는 조선조 말기 대원군의 쇄국정치를 입증하는 척화비와 조선조 형구인 황새바위가 놓여 있다. 지상 2층에는 제3전시장이 있고, 3층에는 제4전시장과 누각이 있는데, 이들 전시장에는 이윤일(요한) 성인의 일대기와 대구대교구 발전사를 잘 묘사한 스테인드글래스가 있으며, 드망즈 주교와 서정길 주교의 유품이 있고, 한역서학서를

비롯하여 각종 기도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4) 천진암 박물관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우산리 500번지 천진암 성지 내에 있는 박물관으로 1992년에 설립되었다. 한국천주교회의 창립에 관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수집·정리·보전·연구할 목적으로 1980년부터 준비하여 현재 이벽의 지식, 홍유한 후손 집에서 수집한 권철신·이기양 등의 친필 서한 등 2,000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집한 유물들은 아직 박물관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천주교회창립사연구원 건물 본관(140평)과 임시 전시실(60평)에 전시·보관 중이다. 현재 기초공사를 완료한 박물관의 규모는 전통과 현대 건축 양식이 조화된 지상 3층 건물로 총 연건평 1,850평에 달할 것인데, 고문서고·수장고·전시실·열람실·연구실·편찬실·소회의실·사무실 등을 갖추고 향온·향습 및 화재에 대비한 시설 등도 완벽하게 갖출 예정이다.

아울러 천진암 성지에는 옛 천진암의 유물인 빙천(氷泉) 및 꾀물 방아확, 대성당 제대석, 대성당 교황 강복 머릿돌,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비,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 5위 묘역, 한국 천주교회 창립 선조 가족 묘역, 조선 대목구 설립자 묘역 등의 기념물들이 조성되어 있다. 창립 선조 5위 묘역에는 정약중·이승훈·이벽·권일신·권철신의 묘가 이장되어 있고, 창립 선조 가족 묘역에는 정약용의 조부 정지해와 조모 풍산 홍씨 묘, 부친 정재원과 모친 의령 남씨 및 해남 윤씨 묘, 정약전과 그의 부인 풍산 홍씨 묘, 이벽의 부친 이부만과 모친 양천 허씨 묘, 이벽의 누이이자 정약현의 부인인 경주 이씨 묘가 이장되어 있으며, 조선 대목구 설립자 묘역에는 정하상과 유진길의 묘가 이장되어 있다.

5) 미리내 성지 천주 성삼 성당 전시관

경기도 안성군 양성면 미산리 미리내 성지에 있다. 1991년 5월에 103위 시성 기념 사업으로 추진해 온 미리내의 천주 성삼 성당이 완공 축성되었는데, 이 천주 성삼 성당 2층에 천주교 신자들의 순교 장면과 형구 모형을 전시한 전시관이 마련되어 있다.

6) 은이 성지 성 김대건 신부 기념 유물 전시관

경기도 용인군 내사면 남곡리 용곡 은이 성지에 설립할 예정이다. 이 전시관은 원래 양지에 세우도록 계획되었으며, 이에 따라 양지 본당에서는 일찍부터 용인 특히 양지 지역 교우들이 대대로 보관해 온 유물들을 수집하여 양지 본당에 전시·보관

해 왔다. 그러나 교구에서 최근에 은이 성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성 김대건 신부 기념 유물 전시관을 은이 성지에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지 본당에 전시·보관돼 있던 유물들은 현재 은이 성지로 옮겨져 성당 안에 전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소장품들은 『성교요리』, 『예수진교사과』, 『성교요리문답』 등 교리 관련 서적 40점, 『회죄직지』, 『사후묵상』, 『천당직로』 등 신심 관련 서적 57점, 『성경직해』, 『성경직해광익』, 『성교감략』 등 성서 관련 서적 83점, 『미사경본』, 『미사책』 등 미사 관련 서적 43점, 『천주성교공과』, 『성교예규』 등 기도서 관련 서적 45점, 『기해일기』, 『보감』 등 한국천주교사 관련 서적 8점, 각종 제의, 각종 제대용 성물 등 102점, 성당 종, 나무감실 등 성당 용 기타 제구 25점, 옛날 축일표, 옛날 상본 등 기타 유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은이 성지에는 성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았던 상해 김가향 성당도 복원할 예정이다.

7) 성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 기념 박물관

제주도 북제주군 한경면 용수리 포구에 설립하고 있다. 박물관을 설립하는 목적은 첫째 김대건 신부의 제주 표착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 김대건 신부가 사제 서품을 받은 후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경면 용수리에서 미사를 드린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박물관 설립은 이미 1998년부터 준비해 왔다. 이해 12월에 제주대학교의 서두옥(예로니모) 교수에게 제주 표착지 선정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고, 울산 과학대학교 이창익 교수에게 라파엘호 고증복원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다음해 5월에 가톨릭대학교 성신 교정 강당에서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 제주 표착지 선정 및 라파엘호 고증복원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같은 해 7월에 원형대로 라파엘호 제작을 완료하였고, 9월에는 김창렬 주교가 한강면 용수리를 성지로 선포하였다.

12월에 교구청 관리국에서 박물관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하였으며, 2000년부터 용수리에 부지 9,314㎡를 마련하여 2004년 10월에 연면적 555㎡(168평)의 지상 2층 건물의 박물관 공사를 시작하였다. 내년 말까지 완공할 예정인 이 박물관의 1층은 자료실·사무실·교육실·수장고로 사용하고, 2층은 전부 전시실로 사용할 예정이다. 라파엘호는 야외에 전시하게 된다. 2층 전시실에는 김대건 신부와 관련된 물품의 전시를 비롯하여 라파엘호 항해도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설치하고, 1층에는 제주에서 사목활동을 하다 선종한 헨리 하롤드 대주교, 원요한 신부, 김병준 신부, 임승빈 신부의 유품을 전시할 예정이다.

8) 기타

이밖에 충남 당진군 우강면 솔피 성지에서도 당진군의 도움을 받아 김대건 신부 기념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또한 충북 제천 배론 성지에서도 유물 전시관을 마련하여 교리서·심신서·기도서 등의 고서들과 원주교구 사제들의 유품을 전시할 계획이고, 교구청 문서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문서고를 만들기 위하여 기록 관리 전문가 두 사람의 협조를 받아 금년 초부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1827년 정해박해의 진원지인 전남 곡성군 오곡면 승법리에도 용기점의 특성을 살린 기념관을 짓기 위하여 부지를 마련 중에 있다.

(2) 성당 및 수도원에 설립된 박물관

1)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역사박물관

서울시 중구 명동 2가 1-6번지 서울 관구 안에 있다. 1888년 한국에 맨 처음으로 진출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는 1988년에 지난 100년 간 걸어온 발자취를 기념하기 위해 1930년대에 지어진 수녀원 내 구 성당 건물 1층에 수녀회의 역사를 한자리에 모아 수녀회 유물관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유물관의 내부 환경이 너무 열악하여 유물의 보존이 어렵게 되자 1999년에 임시 수장고를 만들어 유물을 옮긴 뒤 2000년부터 건물의 내부를 리노베이션하여 2004년 6월에 수녀회 역사박물관으로 다시 개관하였다.

박물관의 규모는 전시관 89평, 수장고 45평으로 되어 있다. 전시관은 ‘이삭 줍는 여인들의 빠스카의 길’이라는 주제로 수녀회가 116년 간 걸어온 길을 4기로 나눠 수녀회 역사를 일별하도록 꾸민 ‘상설 전시관’과 초창기 수도자들이 제작한 성상(聖像), 성물(聖物), 제구(祭具) 등을 전시한 ‘기획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다. 전시 유물은 초창기 수녀들의 친필 서한을 비롯한 각종 고문서, 수도복, 촛대, 봉성채 주머니, 성유 그릇 등의 제구,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용한 오르간 등 1,600점에 달한다. 영상(映像) 장치까지 활용하여 아름답게 꾸며진 전시관과 수장고에는 향온·향습 시설도 갖추어져 있다.

2) 까리따스 수녀회 역사관

전남 나주시 산정동 18번지 나주 성당 안에 있다. 까리따스 수녀회는 살레시오회 선교사인 이탈리아 출신 가블리 신부가 일본에서 설립한 수녀회로 1956년 광주교구장 헨리 해롤드 주교의 초청으로 한국에 진출하여 나주 본당 부지에 본원 및 수련원을 설립하였는데, 나주 성당이 본당 설립 70주년(2005년 5월) 기념 사업의 하

나로 2004년 5월에 까리따스 수녀회의 한국 첫 본원이 자리했던 한옥 기와집을 활용해 설립했다.

1956년부터 1959년까지 까리따스 수녀회 본원으로 사용된 이 한옥은 1934년에 건립된 건물로 안채와 행랑채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를 옛 모습대로 복원하여 수녀회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당시 수녀들이 사용했던 각종 유품들을 전시했다. 또 수녀원 안뜰에는 초창기 지원자들이 직접 만든 성모 동굴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3)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전시관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 134-1번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안에 있다. 한국에 처음 진출한 1909년부터 현재까지 수도원의 지난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는 사진들과 초창기에 사용했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다. 또한 수도원에 관한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는 문서고도 별도로 있다.

4) 인보 성체 수도회 창립자 윤을수 신부 유물관

경기도 용인시 포곡면 삼계리 산 49-1번지 인보 성체 수도회 수련원 안에 있다. 수도회 창립자인 윤을수 신부의 삶을 더듬어볼 수 있도록 그가 사용하던 책, 제의 등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5) 풍수원 성당 유물 전시관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 유현 2리 1097번지 풍수원 성당 안에 있다. 풍수원 본당은 1999년 5월에 모진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신앙 선조들의 신심을 기리고 자랑스런 신앙 역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성당과 함께 강원도 유형 문화재 제69호로 지정된 옛 사제관 건물을 원형대로 복원해 유물관을 설립했다. 강원도의 지원과 순례객 및 본당 신자들의 헌금 등으로 꾸며진 지상 2층 50평 규모의 이 유물 전시관에는 역대 본당 신부들이 사용했던 제의와 성작·성합·촛대·십자고상·성서 등과 박해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웅기 십자고상과 울무 묵주, 제2대 본당 주임 정규하 신부가 직접 쓴 ‘안나회칙’ 등, 그리고 『성경직해』, 『성교절요』, 『천주선교공과』, 『성교일과』 등 고서를 비롯해 풍수원 본당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 등 300여 점의 유물이 체계적으로 정리 전시돼 있다.

6) 용소막 성당 선종완 신부 유물관

강원도 원주시 신림면 용암 2리 719-2번지 용소막 성당 안에 있다. 1988년 11

월에 용소막 출신 사제로 성모 영보 수녀회를 설립하고 성서 번역에 큰 자취를 남기고 1976년에 선종한 선종완(라우렌시오) 신부의 삶과 공적을 기리는 유물관을 성모 영보 수녀회의 도움을 받아 설립하였다. 이 유물관에는 선종완 신부가 사용하던 손목시계·우산·지팡이 등 일상 용품과 제의·제구·의류 등의 유품 112종 384점과 각종 서적류 276권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선종완 신부가 구약성서 번역을 비롯해 집필과 연구를 위해 사용하던 낡은 책상이다. 선 신부가 손수 짜 만든 이 책상에는 등잔을 비롯해 고인이 번역한 구약성서들과 성서 번역을 위해 참고로 사용했던 히브리어 성서와 성서 사전, 70인역 희랍어 구약성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강의 노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밖에도 한국 천주교회 첫 우리말 구약성서인 창세기의 번역 원고 원본을 비롯해 불가타 성서와 불어·독일어·일본어·인도어·영어·희랍어로 된 각종 외국어 성서들, 고인이 사용하던 영문 타자기와 음악을 들을 때 쓰던 전축, 팔레스티나 성지 순례 때 가져온 겨자씨와 주엄나무 도토리과 같은 성서 세계의 열매, 성서 번역 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사육하던 메추리 등도 전시되어 있다. 선 신부의 유물관이 이 자리에 들어서게 된 것은 유물관이 있는 바로 앞마당이 선 신부의 생가터였기 때문이다. 이 유물관은 용소막 본당에 파견되어 있는 성모 영보 수녀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7) 언양 성당 신앙 유물 전시관

경북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 422번지 언양 성당 안에 있다. 언양 지방 천주교 선교 2백주년을 기념하여 1990년 12월 옛 사제관 자리에 '신앙 유물 전시관'을 개관하였다. 이 신앙유물전시관에는 산골짜기 공소와 교우촌에서 수집한 교리서, 신심서, 기도서 등의 고서들과 공소 신자들이 대대로 전해온 은혜성모상(25.2cm)과 천상모후상(19.1cm)을 비롯하여 초기 천주교 포교사의 발자취를 잘 보여주는 서적인 <전(前) 부산지방 천주교 공협회록사> 등 총695점의 귀중한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1900년에 사제 서품을 받은 김문옥 신부, 대구대교구장 서정길 대주교, 초대 부산교구장 최재선 주교, 김동언·김동철 형제 신부 등 언양에서 배출한 35명 사제들의 인물 사진들이 서품을 받은 순서대로 나란히 전시관 벽을 빙 둘러 채우고 있다.

8) 나주 성당 하롤드 대주교 기념관

전남 나주시 산정동 18번지 나주 성당 안에 있다. 나주 성당이 본당 설립 70주년(2005년 5월) 기념 사업의 하나로 2004년 5월에 설립했다. 제5대 광주대교구장을 지낸 헨리 하롤드 대주교는 성 골롬반회 외방선교회 소속 미국인 선교사로 1935년

에 나주 본당 초대 주임으로 부임해서 7년 간 사목하면서 선교는 물론 성당 안에 해성학교를 설립하여 청소년들에게 한글과 우리말, 우리 역사를 가르치며 민족혼을 일깨워 주기도 하였다. 나주 성당은 성 골롬반회 외방선교회가 한국에 진출하여 최초로 지은 성당이기도 하다. 이에 1934년 나주에서 최초로 지어진 서양식 벽돌 건물의 사제관을 2002년부터 대대적으로 수리해 하롤드 대주교 기념관으로 꾸몄다. 이 하롤드 대주교 기념관에는 대주교가 본당 초대주임 시절에 쓰던 타자기를 비롯해 기도서·십자가·성합(聖盒)·제의(祭衣)·사진 등 그의 유품 수십 점이 전시되어 있다.

9) 중립동 성당 서소문 순교자 기념관

서울시 중구 중립동 149-2번지 중립동 성당 안에 있다. 본당 설립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 5월에 설립하였다. 교리서와 성서, 각종 신심 서적 및 전례서, 예식서 등의 교회 출판물과 13위 성인들의 유해 및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10) 왕림 성당 박물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252번지에 있다. 성당 옆에 '박물관' 간판을 내건 작은 건물이 있는데, 여기에 초기 교회 전례 용품과 제대, 묵주, 초기 왕림 성당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 일본악기제조주식회사가 1895년 3월 4일 제작한 오르간 등 500여 점의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왕림 성당은 종현(1882), 원산(1887)에 이어 한국에서 세 번째로 1888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성당으로 1901년에 건립한 기와집 성당의 옛 사제관 건물이 수원 가톨릭대학 안에 남아 있다. 왕림 성당에서는 앞으로 유물과 사료를 더 수집해 좀더 번듯한 박물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라고 한다.

11) 산정동 성당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

전남 목포시 산정 2동 74번지 산정동 성당 안에 있다. 아일랜드에서 1921년 평신도 운동으로 시작된 '레지오 마리아'는 1953년 목포 산정동 성당에서 '치명자의 모후'와 '평화의 모후', 경동 성당에서 '죄인의 의탁' 프레시디움이 조직되면서 한국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발판으로 레지오 마리아는 원주, 전주, 서울, 춘천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 레지오 마리아 운동이 목포의 산정동 성당과 경동 성당에서 기원한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산정동 성당이 100주년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1996년 11월 15일 한국 레지오 마리아 기념관 기공식을 가졌으며, 1년 6개월 동안의 공사 기간을 거쳐 전시관이 포함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31평 규모의 기념관을 1998년 완공하였다.

12) 양양 성당 이광재 신부 기념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성내리 8번지 양양 성당 안에 있다. 3대 주임 이광재(디모테오) 신부의 깊은 신앙심과 순교 정신을 기리기 위해 1983년 10월 1일 옛 수녀원 건물에 그의 기념관을 건립하고 순교 기념각을 세웠다. 기념관에는 이광재 신부의 손때 묻은 제의, 제구, 친필 교리서 등의 유품들, 본당의 역사를 더듬어볼 수 있는 교리문답집, 1930년대 공소회장단 피정 기념사진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광재 신부는 1940년대 후반 연길, 함흥, 원산 등지에서 활동하다 공산당의 탄압을 피해 월남하기 위하여 38선과 가장 가까운 양양 성당으로 모여든 성직자와 수도자들을 도와 탈출시키며 끝까지 성당을 지키다가 6.25전쟁 발발 하루 전날 원산 와우동 형무소로 끌려가 그 해 가을 인민군에 의해 총살당했다.

13) 기타

그밖에 충남 기념물 144호로 지정된 건물을 갖고 있는 충남 아산시 공세리 성당에서도 옛 사제관 건물을 이용하여 박물관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사적 318호 및 지방 기념물 제60호로 지정된 전북 익산군 나바위 성당에서도 박물관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3) 대학교 및 연구소에 설립된 박물관

1) 가톨릭대학교 전례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혜화동 90-1번지 가톨릭 신학대학 안에 있다. 학교에서 대대로 보관하여 오던 가톨릭 교회의 유물과 김인순(누갈다)씨가 1989년 2월에 기증한 한국민속문화 유물 2,026점을 토대로 1989년 5월에 전례박물관을 설립했다. 최근 절두산 성지로부터 제의 및 제구 230여 점을 기증 받아 전례 유물을 보강하였다. 아울러 사이버 박물관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에 교리서·신심서·기도서 등의 교회 관련 고서들이 다수 소장되어 있다. 전례박물관의 전시실은 역사관, 전례관, 김수환 추기경관, 교리자료관, 성 미술관, 민속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다.

역사관에는 한국천주교회 역사의 이해를 돕는 『천주실의』, 『칠극』, 『주교요지』, 『벽위편』, 『기해일기』, 『치명일기』 등의 고서들과 성 김대건 신부의 유해와 그 보존에 관한 유물들, 박해로 순교한 성직자들의 사진과 명단, 103위 성인의 시성에 관한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전례관에는 가톨릭 전례에 관한 유물들, 즉 사제가 미사와 기타 의식을 거행할 때 입는 각종 예복들인 제의류, 미사와 기타 전례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들인 제구류, 전례를 위해 교황이 공인한 책들인 각종 전례서들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1909년에 한국에 진출한 성 베네딕도 수도회에서 사용한 장쾌틀, 1928년 파리외방전교회 신부들이 신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들여온 1855년 프랑스 파리에서 제작한 오르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기증한 '아스나고라의 성모(검은 마돈나)', 내방하였을 때 사용한 의자 등도 갖추어져 있다.

김수환 추기경관에는 경북 군위면 군위읍 하곡리(용대)에 있는 추기경의 생가 사진과 학창 시절 사진, 주교서품 사진, 학위기, 감사패, 포장증(褒章證) 등의 문서들과 추기경이 소장하고 있던 각종 주화, 지팡이, 성화 병풍, 나막신, 사용하던 도장, 파이프, 안경, 십자가 등이 전시되어 있다. 교리 자료관에는 성모 마리아의 대관, 성모 마리아를 환호하는 천사들의 무리, 천상천하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 첫 사람 아담의 창조,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자의 탄생을 예고하는 장면 등의 각종 성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성 미술관에는 각종 교회 미술품들, 즉 이순석 작 '예수성심'(1972), '어형 수반'(1973), 장발 작 '성 김대건'(1983), '성 김효임 콜롬바'(1983), '김효주'(1983), 콜비츠 작 '채찍질', '두 노인', 김교만의 1995년 작 '한국의 성모자상', '예수님 상', '십자가 상',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민속관에는 김인순씨가 기증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데, 전례박물관의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일부 유물만 전시하고 대부분의 유물들은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다.

2) 대구 가톨릭대 박물관

경북 경산시 하영읍 급락1리 330번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안에 있다. 천주교의 유일한 등록 박물관이다. 1969년 5월부터 유물을 수집하기 시작하여 1977년 5월 15일 개교기념일을 맞아 전시실을 마련해 중요 유물을 처음으로 전시하였으며, 1980년 4월 8일 문교부로부터 박물관 설치인가를 받았고, 2000년 12월 30일 문광부에 박물관 등록을 하였다. 고고학·역사학·예술사·민속학·인류학 등에 관한 문화유산을 수집·보관·전시하고, 특히 신라·가야문화, 가톨릭교회사, 한국여성사에 관한 유물을 수집·보관·전시하고 있다. 본 박물관이 2001년에 조사한 한티 순교 성지 내의 한티 마을에 관한 자료도 소장하고 있다.

박물관의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연건평 1,161평이다. 박물관의 전시관은 5개의 전시실과 야외 전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전시실은 학교사 전시실로 학교의 발전 과정을 살필 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대구 가톨릭대학은 1914년에 개교한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정신을 계승하여 1981년에 설립된 선목신학대학과 1952년에 효성여자초급대학으로 처음 출발한 효성여자대학이 1994년에 발전적 통합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통합 이전 양 대학의 역사를 조명

해 볼 수 있는 각종 자료들과 통합 과정 그리고 현재까지에 이르는 발전 과정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아울러 외국 대학과의 국제교류, 교수 연구활동 그리고 학생활동 등의 자료도 주제별로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고고유물 전시실로 주로 한반도 지역의 청동기 시대부터 통일 신라 시대에 이르는 유물들이 차례로 전시되어 있다. 특히 본 박물관이 직접 발굴 작업에 참여한 경북 구미시 선산읍 일대의 고분군, 경주시 용강동 고분군, 대구광역시 대곡택지개발지구내의 가마터 유적 등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이 복원·전시되어 있다. 제3전시실은 민속품 전시실로 고려 시대 이후 조선 시대의 생활상을 살펴볼 수 있는 도자기를 비롯한 공예품, 일상용품에 이르는 각종 민속 자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성·재현되어 있다.

제4전시실은 효성여자대학을 설립한 인물의 기념실로 몬시뇰 전석재 전 총장이 교육 사업에 헌신한 흔적과 천주교 사제로서의 인품을 살필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제5전시실은 춘경콜렉션으로 회화·토기·자기·석기·장도·비녀·갑골문 등이 전시되어 있다. 야외 전시장은 박물관 건물 주변의 대지 위에 조성되어 있는데, 몬시뇰 전석재 전 총장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 기념공원, 각종 비석과 기타 석조물 등이 전시되어 있는 석조물 전시장, 공군으로부터 인수받은 초창기 훈련용 비행기 2대가 전시되어 있는 비행기 전시장, 본교 학생 및 교수 작품 등 설치물을 전시하고 있는 현대작품 전시장, 2대의 대형 조리기구와 소나무·밤나무가 어우러진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3) 한국교회사연구소 도서실

서울시 중구 저동 1가 2-3번지 평화빌딩 안에 있다. 1964년에 설립된 한국교회사연구소의 도서실에는 성서, 교리서, 기도서, 신심서, 한국·중국·일본·유럽 교회사, 천주가사, 성가, 한역서학서 등 천주교 및 서학 관계 고문서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또한 『여지도서』와 같은 지리서, 『성호집』과 같은 문집류, 명성황후의 친필과 같은 문서류 등도 다수 소장되어 있다. 아울러 역대 교구장 문서와 프랑스의 파리 외방전교회, 독일의 베네딕토회, 미국의 메리놀회, 아일랜드의 성골롬반회 등에서 수집한 문서와 사진 자료들도 다량 소장되어 있다. 도서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사서와 열람실이 갖추어져 있고, 서고에는 자료의 보호를 위해 향온·향습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고문서실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수장고가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박해기에 신자들이 신문할 때 사용한 형구의 모조품들도 소장하고 있다.

4) 호남교회사연구소 도서실

전라북도 완주군 비봉면 내월리 천호 마을에 있다. 1983년에 설립된 호남교회사연구소의 도서실에는 성서, 교리서, 기도서, 신심서, 한국천주교회사 관련 서적, 천주가사, 성가, 한역서학서 등 천주교 및 서학 관계 고문서가 한국교회사연구소 다음으로 많이 소장되어 있다. 천주교구의 천주교 자료도 다량 수집·정리하여 소장하고 있고, 순교자들의 무덤에서 발굴한 성물들도 일부 소장하고 있다.

5) 성 유스티노 신학교 기념관

대구광역시 남산 3동 219번지 대구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안에 있다. 성 유스티노 신학교 건물을 이용하여 꾸민 기념관에는 드망즈 주교와 서정길 주교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다. 기념관이 들어 있는 성 유스티노 신학교 건물은 대구 문화재 자료 23호로 등록된 것으로 대구교구의 초대 교구장인 드망즈 주교가 중국인 벽돌공을 동원하여 1913년에 착공하여 1914년에 완공한 붉은 벽돌 쌓기 2층 신학교 건물로 서울 명동성당의 건축에 참여했던 프와넬 신부가 건립계획을 세웠고, 공사는 중국인 기술자들이 담당하였으며, 책임목수는 프랑스 영사관을 건축할 때 참여한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6) 기타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87-10번지 구산 성지 안에 설립되어 있는 수원교회사연구소도 장차 교회사 박물관을 만들려고 유물을 수집해 오고 있다.

(4)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 - 이콘 마오로

경기도 화성시 북양동 남양 성모 성지 초입에 있다. '이콘 마오로'는 국내의 첫 이콘 전시관으로 2004년 1월 15일 설립되었다. 독일에서 이콘을 공부하고 돌아온 김형부(마오로)씨가 이콘 예술 활성화를 위해 개관한 것으로, 비잔틴 양식을 변용해 지은 2층 건물에 50평 전시실과 이콘 카페로 이루어져 있다.

3. 천주교 박물관의 과제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천주교 유물은 과거는 물론이고 현재나 미래의 우리 삶과 관련해서도 매우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기관에서 수집·전시·보관하고 있을 뿐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

와 같이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 아무런 관심도 쏟지 않는다는 점이 천주교 박물관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한다.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천주교 유물에 대한 가치를 올바로 인식하여 그것들을 수집·전시·보관하는 데 좀더 많은 배려를 하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천주교 유물의 가치를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되는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해당 기관의 관련자를 발표에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도 천주교의 유물이나 자료가 어느 한 종교에 국한되지 않고 민족사의 입장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절실히 깨달아 그것들의 수집·전시·보관을 적극 지원해야 할 것 같다.

다음으로 지적할 것은 천주교 기관에서 천주교 유물을 수집·전시·보관하는 데 개신교나 타 종교에 비해 관심을 상대적으로 적게 기울인다는 점이다. 불교의 경우 큐레이터와 소방 시설 등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등록 박물관이 7개나 되고 천주교보다 역사가 한참 짧은 개신교의 경우도 2개나 되는데, 천주교는 천주교와 관련하여 학교사를 주로 전시하고 있는 대구 가톨릭대학교 박물관 하나밖에 없다. 한국 천주교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가장 많은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서울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이나 부산 오륜대 순교자 기념관마저도 미등록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천주교 박물관이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큐레이터도 없이 비전문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또한 유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방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유물을 함부로 관리해 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는 천주교 기관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록 박물관을 늘려 유물의 수집·전시·보관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은 천주교 박물관의 유물 전시가 기독교 박물관에 비해 너무나 낙후되어 있다는 점이다. 천주교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과 기독교의 대표적인 박물관인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을 함께 관람한 사람들 대부분이 절두산 순교 성지 박물관에 대해 너무나 낙후되었다는 안타까운 느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천주교 박물관이 낙후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천주교 박물관의 관리가 대부분 유물이나 박물관에 관한 전문 지식도 없고 일정한 주기로 교체되는 신부나 수녀들이 맡고 있어서 유물을 연구의 대상이나 자료로 충분히 이용하지도 못하고 아울러 선교의 도구로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물이나 박물관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대로 갖춘 사람에게 박물관의 관리를 항구적으로 맡겨 활용도를 높이고 재정적인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또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 당국자들이 유물이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하여 유물의 수집·전시·보관을 적극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지적할 것은 천주교 박물관들이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신학대학이나 수도원에 있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기에 불편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가톨릭대학의 전례박물관을 관람하려면 미리 연락을 하고 또 수위실에서 신고를 마쳐야 겨우 관람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그 박물관은 자물쇠로 굳게 닫혀 있는 시간이 많다. 앞으로는 일반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박물관이 설치 되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